

국도 1호선 활용 '목포형 남북교류' 뜬다



목포시 영산로 근대역사관 앞에 위치한 국도 1.2호선 표시석.



목포시는 지난 2007년 사단법인 전남 도민교류협의회와 공동으로 북한 평양에 발효 공(청국장) 공장을 준공하는 등 교류 경험이 있어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목포형 남북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지난 2007년 10월 고려항공을 이용해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한 뒤 촬영한 기념사진. <독자 제공>

2007년 평양 발효콩 공장 경험 화해무드 타고 협력 잇기 분주 신의주와 문화·수산물 교류 추진 시민단체도 교류 추진 선언식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도 1호선의 상징성을 활용한 '목포형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3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최근 남북 화해분위기에 따라 남북교류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11년 개통된 국도 1호선은 목포시에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이르는 일반 국도(939.1km)로 '국도 1.2호선 기점' 표시석이 목포시 영산로 근대역사관(구 일본영사관) 앞에 위치해 이 같은 상징성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목포시는 지난 2007년 사단법인 전남 도민교류협의회와 공동으로 북한 평양에 발효 콩(청국장) 공장을 준공하는 등 교류를 가졌다. 당시 방북단은 북한이 제 공한 고려항공을 이용해 10월 26일 광주 공항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2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11년 만에 재추진하는 '목포형 남북교류'사업에 정치권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박홍을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달 30일 출마기자회견에서 "국도 1호선의 상징성을 활용해 시·도 단위 목포시와 종착점인 신의주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 후보는 "남북교류는 수산도시이자 해양인 목포의 장점을 살려 수산물 교류와 문화차원의 교류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포시는 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합창단과 무용단 등 6개 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문화예술 교류부터 추진한 뒤 점진적으로 수산물 교류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구상이다.

이 경우 시립예술단체 50~60명을 포함해 100명 내외로 교류단을 구성하고 시기는 10월 중으로 추진하겠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 역시 지난 9일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에 새 시대가 열리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통해 새로운 목포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그려진 환 서해 경제벨트를 통해 목포 중심의 서남권 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이번 문재인 정부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서남권 지자체간 경제통합을 통해 목포를 환 황해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계, 관광계, 경제계, 세터민 등 민간 부문에서도 남북교류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새터민 회원, 한국예총 목포신안지부, 경제 관련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은 지난 9일 국도1호선 기점 기념비가 세워진 유달산 우체국 옆에 모여 '목포-신의주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선언식'을 갖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선도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분야별 비전 선언을 통해 목포-신의주간 남북교류와 물류를 성사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목포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신의주와 교류를 선점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며 "민선 7기가 들어서는 대로 본격적인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대 헬스케어도자 명품사업단 日 도자기 축제 참가 발열도자기 등 신개념 제품 선보이며 인기

목포대학교 헬스케어도자 명품사업단(단장 조영석· Healthcare Eco-ceramic Luxury Products 이하 HELP사업단)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일본 아리타(有田)도자기 축제에 참가해 신개념의 도자기 제품을 선보이며 관심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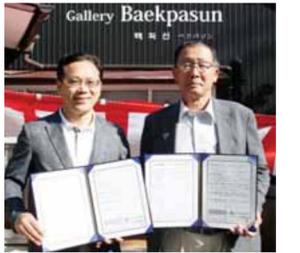
일본 아리타 도자기 축제는 115회째로 매년 전 세계에서 약 120만명이 몰려드는 일본 최대의 도자기 축제다. 목포대 HELP사업단은 축제 전 기간 동안 헬스케어 도자기 제품을 홍보, 판매하며 일본산케이신문에도 보도되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세계 최초로 발열도자기 특허를 획득하여 헬스케어도자기제품 선도기업으로 성장한 (주)에릭스(www.elix.co.kr)와 영국 최고의 해물백화점(Harrods)에서 청자만년필을 5년간 판매하며 진가를 인정받은 '맘키프레프트'가 신제품 선보이며 한국을 대표하여 출품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서 아리타 현지 도자업체와의 기술협력 및 판매를 위한 수출상담 21건과 MOU 3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일본 나가사키상사 주식회사(長崎商事株式会社)에서 수입산 우체국 옆에 모여 '목포-신의주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선언식'을 갖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선도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분야별 비전 선언을 통해 목포-신의주간 남북교류와 물류를 성사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목포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신의주와 교류를 선점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내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며 "민선 7기가 들어서는 대로 본격적인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조영석(사진 왼쪽) 목포대학교 헬스케어도자명품사업단장이 일본 아리타 현지 도자업체와의 기술협력과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HELP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조영석 교수는 "본 사업은 헬스케어용 고성능 도자기제품의 개발 및 명품화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품브랜드 도자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일본 아리타 도자기축제 참여를 계기로 일본의 우수기업과의 기술교류 및 상호협력을 통하여 전남도 지역의 도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대 HELP사업단이 자리 잡고 있는 전남 서남권(목포, 무안, 강진)은 한국 생활도자기 업체의 약 60%가 집중되어 있는 한국 최대의 생활도자 러스터로 한국의 도자기제품들이 급변하는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도자기제품의 신개념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목포대 HELP사업단은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품뿌리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헬스케어 기능을 강화한 첨단도자기 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발족한 정부지원 사업단이다.

목포=김준성기자 jis0533@

휠체어 타고 유달산 둘레길 돌아보세요

무장애 '배리어 프리' 8월 조성

목포시가 건물이나 교통수단이 아닌 산림에 처음으로 '배리어 프리'정책을 도입해 주목된다.

배리어 프리(Barrier-Free)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한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유달산에 조성된 둘레길을 휠체어를 타고 교통약자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유달산 둘레길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시범적으로 유달산 둘레길 6.3km 가운데 죽교 체육공원에서 조각공원 간 1km 구간에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조성된다. 사업비는 5억 원(기금 3억, 시비 2억)이 투입된다. 시는 이용 추이를 지켜본 뒤 연차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두 차례에 걸친 대상지 실태현황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가 유달산 둘레길 죽교 체육공원에서 조각공원 간 1km구간에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숲길 조성에 나선다. <목포시 제공>

시민단체, 6·13 지방선거 33개 정책 제안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목포시를 원한다."

6.13 지방선거 목포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이날 네트워크가 발표한 정책 제안에는 ▲인권이 보장되는 목포 ▲시민 모두가 안전한 목포 ▲에너지를 중시하는 목포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해 재생되는 목포 ▲장년에게 희망을 주는 목포 ▲여성이 살만한 목포 등 10대 분야에 33개 정책이 담겼다.

또 네트워크는 해상케이블카, 대양산단, 임성지구 등 목포시 주요 현안 문제를 새로 들어서는 민선 7기가 해결하고, 목포지역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세월호의 거취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목포시장과 시의원 후보자들에게 이날 발표한 정책제안에 대한 공약 화와 실천계획을 요구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용봉동 이전 10주년 기념

10주년 기념행사 안내

전국치대과대학생축제 - 전남대 주관

2018.05.11/전남대 민주마루

치과알림회

2018.05.17 - 05.18/전남대 봉지, 버스터미널, 아시아문화전당

임플란트센터 확장개소기념 임플란트 심포지움

2018.05.19/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5층 대강당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새병원 이전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2018.10.05 - 10.06/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5층 대강당

고려인 마을 치과의료봉사

2018. 6월 중

구강보건의 달 기념 다문화 구강검진

2018.05.19, 05.26/치과병원 1층 종합진료센터

광주전남권역 구강 장애인 진료 센터 장애인 구강검진 및 무료 진료

광주전남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17곳



2018 제37회 치과알림회

2018.05.17
2018.05.18

장소 : 전남대학교 캠퍼스 제1학생회관 앞
광주고속버스터미널(유스퀘어)
아시아문화전당(니눔광장, 17일)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은 '세계평가(상하이랭킹) 국내3위권 대학'에 랭킹되었으며, 전남대학교치과병원은 '최첨단 인프라와 환자중심의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